금호, 경영 위기에도 문화사랑은 계속

"메세나 훈풍 멈추지 않는다"

서울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이 진행하는 '금호영재콘서트', '금호영아티스트콘서트'와 유사한 '주니어콘서트'가 광주에서도 열린다.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제공〉

광주·전남·북 청소년들 꿈의 무대
'주니어콘서트' 개최 음악영재 발굴
금호영재앙상블·국악실내악단 창단

김사도씨

금용웅씨

'음악 영재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금호아시아나 그룹의 '문화 사랑'은 계속된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30년 넘는 세월 동안 문화재단을 통해 클래식 음악 분야의 영재, 영아티스트, 라이징 스타를 발굴하고 금호아시아나솔로이스츠를 운영하며 한국 문화계를 풍성하게 했다.

지난해 광주 광천터미널에 클래식 음악 전문홀과 갤러리를 갖춘 유·스퀘어문화관을 오픈하며 지역 문화발전에 눈을 돌린 금호그룹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올해부터 지역 음악 영재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한다.

유·스퀘어문화관은 금호영재앙상블과 금호국악실내악단을 창단하고 주니어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지역 음악 영재 발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4월 오디션 20명 선발

▲주니어 콘서트 개최

한창 음악인으로 꿈을 키울 어린 클래식 연주자들에게 금호문화재단이 실시하는 '금호 영재 콘서트'(초·중학생 대상)와 '금호 영아티스트 콘서트'(고등학생·대학생)는 꼭 서보고 싶은 무대다.

매년 전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금호영재콘서트와 금호 영아티스트콘서트는 치열한 오디션을 거쳐 재능있는 연주자를 발굴, 독주회 등을 열어주고 있다.

유·스퀘어문화관은 광주·전남북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니어콘서트'를 개최한다. 영재콘서트와 영아티스트콘서트를 접목한 프로그램이다.

저명한 음악가들의 오디션을 거쳐 매년 20명 안팎의 연주자를 선발하며 6차례 연주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선발된 주니어 영재들은 출연료를 받고 독주회와 3~4인 음악회에 출연하는 등 실력을 뽐내게 된다.

2010년 오디션은 오는 4월께 열릴 예정이며 12세부터 대학 재학생까지 지원할 수 있다. 바이올린, 피아노, 가야금 등 클래식과 국악을 아우르는 다양한 연주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유명 연주자 협연 무대

▲영재앙상블·국악실내악단 창단

20여명 안팎으로 꾸려질 금호영재앙상블은 12세부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악기 연주 경험이 2년 이상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단원을 선발할 예정으로 정식 앙상블 팀과 함께 예비반을 함께 모집, 예비반에 뽑힐 경우 실력을 갖추면 정식 단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금호영재앙상블은 연주력이 갖춰지면 김대진씨가 음악감독을 맡고 있는금호아트홀체임버뮤직소사이어나 손열음·권혁주씨 등이 소속된 금호솔로이스츠와 협연 무대를 갖게 된다. 또 우수단원에게는 장학금이 주어지며 해외연주회를 비롯한 정기연주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지도는 영국 웨일즈 대학에서 지휘로 석사 학위를 받은 김사도씨가 맡는다. 오디션은 오는 20일 열리며 주 1회 2시간씩 집중연습을 하게 된다. 참가비는 3개월에 21만원이다.

한편 오는 8월에는 바이올리니스트 권혁주씨의 마스터 클래스가 열릴 예정이며 금호영재앙상블 단원들에게는 무료 참가 기회가 주어진다.

금호국악실내악단도 출범한다. 전통 국악과 퓨전국악을 함께 배우게 되며 10세부터 성인까지 참여할 수 있다.

지도는 대금연주자 금용웅씨가 맡는다. 한국예술종합학교와 중앙대에서 수학한 금씨는 전주대사습기악부 장원 등을 수상했으며 서울에서 실내악단 '젊은가락' 단원으로 활동했다. 단원은 수시로 심층면접을 통해 선발할 예정이다.

문의 062-360-843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사진같은 그림…젊은 작가 11명 '본 뜻' 展

곡성 옥과미술관 4월22일까지

곡성 옥과미술관은 오는 4월22일까지 지역의 젊은 작가 11명의 작품을 선보이는 '본 뜻' 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김연수, 안태영, 박병우, 강남구, 강동권, 최고봉, 최요안, 조현수, 김단화, 김용안, 엄기준씨 등이 참여한다.

김용안씨는 안개 자욱한 산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담아냄으로써 자연의 장엄함과 숭고함을 전해주는 작품을 선보인다. 움직임이 살아있는 안개와 산자락의 푸름을 대비시켜 한가로운 풍경을 선사한다.

또 강남구씨는 꽃을 도드라지게 그린 뒤 주변은 안개에 쌓인 듯 희뿌옇게 처리해 거리감을 살린 강변 풍경을 전시한다. 원근감이 살아 있어 사진을 보는 듯한 착각이 들게 하는 작품이다.

지역 미술대학과 대학원을 갓 졸업한 젊은 작가들의 작품도 눈에 띈다.

최고봉씨는 와인잔과 초콜릿 과장, 잡지 등이 어지럽게 펼쳐져 있는 책상 위 풍경을 현장감을 살려 화폭에 담아냈고, 최요안씨는 신문과 사람을 한 화명에 병치시킨 이색 작품을 선보인다.

이 밖에 안태영씨는 사실적인 묘사로 사탕을 그린 작품을 출품했고, 조현수씨는 물 위에 가지를 드리우고 있는 매화의 아름다움을 화폭에 담아 전시한다. 문의 061-363-7278.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조현수 작 '봄 - 그리고'

강동권 작 '환희'

명기환 시인 에세이집 '시 같은 바다이야기'

세계 곳곳 미항 노래

"그는 괴짜다. 바다를 보고 울분을 토해내고, 때론 섬을 너무나 사랑하다 파도에 휩싸인 섬의 흔적이 되어버리고 만다. 누군가는 그를 '섬 대통령'으로 누군가는 '영원한 마도로스'로 불렀다."

섬 사람들의 강인한 삶과 바다의 아름다운 모습을 글로 써왔던 명기환(67) 시인이 최근 세계 곳곳의 미항을 노래한 에세이집 '시 같은 바다이야기'(뉴스투데이 펴냄)를 출간했다. 5년여에 걸쳐 목포투데이에 등에 연재한 글을 뽑아 엮은 것.

지난해 시집 '목포 그리고 바다'로 목포 사랑을 절절이 표현했던 명 시인은 이번 에세이에서 지중해와 터키, 시드니, 하롱베이, 발리, 훗카이도 등 세계적인 미항을 찾아다니며 겪은 감상과 아름다움을 사진과 함께 기록했다.

시인은 인류 최초의 집단 주거지가 발견된 '차탈회윅'과 '노아의 방주'가 걸렸다는 산 '아라라트'에서 목포를 그리워하고 사람 냄새를 그리워하고 있다.

시인은 지난 한해 동안 독도와 울릉도, 백령도, 제주도 우도, 마라도, 가파도 등 우리나라 섬들을 돌면서 작품에만 몰입했다.

그는 "지난해 6월께 독도지킴이 5001함과 함께 울릉도 독도 등에 뿌리내려진 삶의 흔적을 찾기도 했다"며 "독도 수비대원들과 함께 독도 정상에 올랐다가 바위 틈 사이 산란기의 괭이갈매기에서 생명의 소중함을 체험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번 에세이집은 휴대하며 읽기 쉽게 문고판 크기로 제작됐다.

명 시인은 해남출신으로 동국대 국문과와 경희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했으며 1969년 '풀과 별' 특집으로 작품활동을 시작, 다수의 시집과 시화첩을 냈다. 2005년 목포덕인고등학교를 정년퇴직한 후 섬과 외국을 오가며 작품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가야금 연주자 정선옥씨 목요 국악한마당 무대에 내일 국악전수관

가야금 연주자 정선옥씨가 광주 빛고을국악전수관이 진행하는 '목요열린국악한마당' 무대에 선다. 11일 오후 7시 국악전수관 공연장.

정씨는 이번 무대에서 12현, 17현 가야금으로 전통과 창작음악을 아우르는 레퍼토리를 선보인다.

연주 곡목은 '김죽파류 가야금 산조', 산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구성한 '남도 환상곡', 해금과 듀엣으로 연주하는 '황토길', 밀양 지방의 민요를 모티프로 한 '옹헤야' 등이다.

전남대 국악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한 정씨는 현재 전남도립국악단 상임단원으로 활동중이며 전남대에 출강하고 있다.

장고 반주는 양신승씨. 문의 062-350-455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